

## 유화

- 인애

인큐베이터 안에는 죽은 듯 잠들어 있는 아이가 있었다. 나는 덜 자라  
쭈글쭈글 못생긴 아기의 모습에 인상을 찌푸렸다. 인큐베이터 너머  
자동문에서 하얀 가운데 딱 끼는 흰 장갑을 낀 클론이 손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하나 노출되지 않은  
차림이었다. 방금 소독약을 뿌렸는지 장갑 표면에 작은 방울들이  
맺혀있었다. 클론은 아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그저 저기 누워있는 쭈글쭈글한 아이를 더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약 10분이 지나고 나는 드디어 첫 번째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는 나오자마자 숨을 몰아쉬었다. 답답하고 습한 공기가 나를 에워싸는 동안 나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을 계속 느껴야만 했다. 머릿속에서는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덜 자란 징그러운 아이를 5명쯤 봤을 때 나는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더 봤다간 아침에 먹은 토스트와 스프를 전부 토해낼지도 모를 일이었다.

축 처진 채 집에 들어온 나는 아이를 기르는 것부터 할지 낳는 것부터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배양하는 것은 어쩐지도덕적이지 못한 기분이 들었다. 둘 다 디자이너 베이비인 것은 매한가지였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아이를 직접 임신하기로 했다.

인터넷 창에 ‘맞춤 아기’라고 검색한 뒤 여러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병원을 4군데쯤 찾아봤을 때 나는 창을 닫았다. 나는 마른 세수를 하며 홈 AI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 얼마 전 디자이너 베이비를 낳은 13년 지기 친구였다.

“닥터가 좀 또라이 같긴 한데 실력 하나는 믿을만해. 아, 그 닥터가 원장이거든, 근데 진짜 잘생겼다. 젊어. 진짜 젊은지는 모르겠기는 한데 여하튼, 넌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잘 해봐. 너가 닥터 이상형일지 누가 알겠니.”

“뭘 잘해.”

“나도 그냥 결혼하지 말 걸 그랬나 봐. 닥터가 그렇게 매력적인 줄 알았다면...”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전화를 끊었다. 병원 번호를 받은 여자는 다시 인터넷 창을 열어 병원을 검색해보았다. 홈페이지가 깔끔한 게 어쩐지 믿음이 갔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전화를 걸어 이번

주 금요일로 상담을 예약했다. 상담 예약 전화를 마친 뒤 나는  
코코아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 제형

서랍에서 주사기를 하나 꺼내 소독을 하고 약물을 주입했다. 셔츠를  
걸어 피부를 소독 거즈로 닦아냈다. 이미 주사자국이 많이 나있었다.  
팔에 주사를 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조금 어지럽더니 속이  
메스꺼워졌다. 피부가 땅기는 게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니  
자글자글하던 주름은 다 사라지고 없었다. 벌써 수십 년째 이십대의  
얼굴로 살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났다. 원목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쇄골까지 내려온 밝은 갈색 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잔뜩 움츠린 채  
들어왔다. 정수리부터 들이미는 게 그녀의 인사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식 웃으며 나는 그녀를 흰색 가죽 소파로 안내했다. 보아하니  
첫 상담이군.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을 보니 강제적으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다. 나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아이를 맞추러  
오는 부류에게 절대 아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애인 혹은  
시부모가 와도 난 아랑곳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어쨌든 임신을 하는  
것은 여자였으니 말이다.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 상담하러 왔다고  
예약도 했고 접수도 했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건가, 하는 의문이

얼굴에 가득해 보였다. 이 일을 오래 했지만 정말 오랜만이였다.

이렇게 투명한 여자는.

“...아이 상담하러 왔는데요…….”

“이번이 첫 번째인가요?”

“네……. 아이를 갖는 건 처음이에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아니요. 상담 말이에요. 다른 데서 받은 적 있어요?”

여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또다시 그녀의 정수리가 인사를  
해왔다. 나는 탁탁, 타자를 두드리며 그녀의 기본 정보를 받았다.

#### 지인애 / 23세 / 첫 상담 / 희망하는 아이의 프로필이 따로 있음

나는 모니터 한편에 띄워져 있는 창에 ‘Pre-mom 2045 나갑니다.  
비용 상담해주세요.’라고 짙막하게 채팅을 남기고 여자에게 싱긋  
웃으며 이제 나가도 좋다고 말했다. 여자는 여전히 긴장한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을 어찌나  
조심스레 닫든지 다시 한번 그녀의 정수리와 마주하고 말았다.

나는 탄력 좋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다. 천장은  
구름이 홀륭하게 피어있는 푸른 하늘을 보여주었다. 저 여자는 분명  
비용 상담에서 돌아갈 것이다. 맞춤 아이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용이 비싼 건 사실이였다. 수수한  
웃차림에 무슨 돈이 있겠냐마는. 나는 그런 어리숙한 여자에게 돈을  
 뜯어낼 정도로 궁핍하지 않았다.

그 뒤로 3명쯤 더 상담했고 3번째 사람을 내보냈을 때 오른켠에  
 떠있는 창에 ‘Pre-mom 2045 확정. 디자인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채팅이 올라왔다. 나는 왼쪽 입꼬리를 올리며 채팅을 세 번은 더 읽었다.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야겠군.

나는 기분 좋은 얼굴로 일어나 흰 가운을 걸쳐 입었다. 나는 잔뜩 신이 났지만 이 병원에서의 위치가 있었기에 점잖은 표정으로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조금 걸어 들어가 온통 유리벽으로 된 방 앞에서 가벼운 숨을 한 번 내쉬고 들어갔다. 상담 간호사는 날 보더니 목례를 하고 차트를 넘겨주었다.

언제 머리를 묶었는지 그녀의 갈색 머리는 정갈하게 묶여있었다.

나는 여자에게 20장 정도의 pdf 파일을 전달했다. 여자는 얇고 작은 손으로 앞에 놓인 pc를 만졌다. 투명한 여자의 피부와 탁한 회색이 대조되어 보였다.

어떤 아이를 원하냐는 나의 질문에 그녀는 차분히 항목을 체크하며 입을 열었다.

“제가 한 7년 전에 고아원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났거든요. 꽤 친했는데 정말 예쁘더라구요. 전 어려서부터 꿈이 엄마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었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나 보네요.”

여자는 발그레한 표정으로 공상에 잠긴 듯 이야기를 지속해나갔다. 나는 그녀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내 앞에 놓인 차트에 아이의 세부 사항을 적었다.

나는 1시쯤 짐을 챙겨 퇴근을 했다. 중천에 떠있는 햇살을 받으며 퇴근하는 건 언제나 짜릿했다. 오직 수요일에만 가능한 일이었기에 더 기분이 좋은지도 몰랐다. 거대한 빌딩의 창문 한 칸 한 칸에 간혀 일광욕조차 하지 못하는 저들이 햇빛 한 줌 없이 시들어가는 식물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나 해가 짹짹한데.

집까지 가는 길은 느긋하게 걸어 10분 거리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화려한 패턴의 셔츠를 입은 내 모습은 분명 멋져 보일 것이다. 나는 오늘 맡기로 확정난 프로젝트에 한껏 신이 나있었다. 점점 빨라지는 발걸음에 속으로 ‘체통을 지켜야지, 제형아.’ 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외형은 스물 남짓이었지만 나이 환갑에 출렁거릴 수는 없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군데군데 기스가 나있는 회색 현관문 앞에 섰다. 현관에 달린 센서가 작동하며 나를 인식하자 문이 열렸다. 나는 현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커다란 책상에 앉았다. 탁 트인 창을 바라보았다. 새과란 하늘을 보자 들떠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노트북은 병원 모니터 창과 동일한 창이 띄워져 있었다. 나는 Pre-mom 2045의 이름을 Planning 922로 바꾸었다.

나는 여자가 말한 아이를 찾아보기로 했다. 디자이너 베이비 협회 페이지를 열었다. 어쩌면 내가 만든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아이를 만난 곳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고아원이었다. 나는 종종 고아원에 디자이너 베이비들을 보내곤 했는데 첫째, 그 아이들을 만드는 건 내게 큰 도움이 됐다. 유전자를 디자인하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면밀히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고치기도 쉬웠으니 나 말고도 많은 닥터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둘째,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은 더 입양되기가 쉬웠으므로 우리 사회의 부유하지 않은 부모들이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비밀리에 아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입소문이 타고아원의 맞춤 아이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7년 전에 여자가 만난 남자아이는 내가 만든 아이가 맞았다.  
BPS001. 18년 전 연구원을 나와 디자이너 베이비 병원을 설립한 후

처음으로 만든 아이였다. 처음으로 디자인의 전 과정을 혼자 해보았기 때문에 아주 서툴렀다. 장장 3년이 걸린 아이였다.

그 아이는 내게 분신과도 같았다. 임신부로 프로그래밍된 클론에게 아이를 수정시키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진짜 부모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를 보내기 싫어 태어나고서 2년을 데리고 살았다. 남몰래 ‘유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규정상 자신이 디자인한 아이는 키울 수 없었으므로 협회의 경고장을 5번째 받았을 때, 하는 수없이 고아원에 보냈다.

고아원에 간 아이는 처음엔 잘 지내는가 싶더니 이내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냈다. 나는 아이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프로그램을 몇 번이나 확인해 보았지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아이는 7살이 되던 해 어떤 부모에게 입양되었다. 그 뒤론 소식을 알 수 없었다. 규정상 유전자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아이라고 해도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놈의 규정, 규정, 규정! 나는 정부와 협회가 제멋대로 만든 규정을 모두 깨부수고 싶었다.

## • 인애

나는 침대에 누워 두근거리는 심장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임신하면 심장 두 개가 나란히 뛰겠지. 내 심장 하나, 아이 심장 하나. 나는 기대감에 가득 차 옆에 놓인 커다란 쿠션을 끌어안았다. 쿠션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짹 질러보기도 했다.

언제쯤 아이가 완성될까. 언제 수정할 수 있을까. 빨리 내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데…….

일주일에 두 번은 원장님을 만났는데 한 번은 아이에 대한 상담이었고 다른 날은 내 건강에 관한 상담 및 검사였다. 맞춤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수정 단계에서 여러 번 실패해 결국 인큐베이터 아이나 대리모를 선택한다. 하지만 내겐 직접 임신하는 것이 의미 있었다.

간단한 신체검사부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검사들까지. 병원 플랜에 따라 차례로 받았다. 표준 이상이 되지 않는 사항들은 약물이나 운동을 통해 표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왜 친구가 맞춤 아이에 돈을 그렇게나 많이 썼는지 알 수 있었던 3개월이었다.

나는 오랜 상담 끝에 다음 해 2월에 임신하기로 했다. 원장님은 올해 10월쯤 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난 12월 생 아이를 갖고 싶었다. 여름과 겨울, 두 계절 중 겨울이 더 좋았고 하얗게 눈 내리는 날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를 비롯해서 자연까지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였다. 한편으로는, 겨울에 그 아이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한 게 내심 마음에 걸렸다. 그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 아이를 위해 편지와 선물을 준비했었지만 생일을 맞이하기 3일 전, 그 아이는 다른 부모에게 입양되었다. 결국 전해지지 못한 선물은 커다란 수납용 박스에 담겼다. 아마 그 위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였을 것이었다.

침대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맨발로 땅을 밟았다. 복슬복슬한 러그가 깔려있어 기분이 좋았다. 밖은 땡볕에 매미가 타는 마당이었지만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드러운 털이 촘촘히 박힌 슬리퍼를 신었다. 나는 나무 문양이 그려진 계단을 밟아 2층으로 올라갔다. 한동안 들어오지 않아 먼지가 쌓여있었다. 문을 열자 통하는 공기에 먼지들이 일어나 내 코와 입으로 혹 들어왔다. 나는 소매 끝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며

재빨리 들어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홈 AI는 1층에만 설치해둔 터라 2층은 꼭 내 손이 닿아야 했다. 아이를 낳으면 2층도 홈 AI를 설치해야겠지. 아이를 위험하게 혼자 둘 수는 없으니 말이다.

나는 커다란 수납 박스를 열었다. 먼지가 뿌옇게 앉아 짙은 파란색이 회색빛으로 가득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어 나무 바닥에 내려놓았다. 먼지가 하얗게 일어 기침이 나왔다. 박스에 덩그러니 놓인 것은 중간 사이즈의 박스 하나였다. 맨들 거리는 금색 포장지에 둘러싸인 박스를 집어 들어 포장지를 곱게 뜯었다. 7년 전의 나는 꽤나 꼼꼼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 포장지 안에 든 것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태블릿이었다. 태블릿은 내 손바닥 두 개를 얹어도 다 가리지 못할 만큼 컸다. 또래와 놀기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더 즐기던 아이였기에 모아둔 용돈을 전부 쏟아부어 샀었다. 결국 전해지지 못했지만…….

충전기를 연결하니 전원이 들어왔다. 나는 휴지통에서 내가 그렸던 그림을 불러오고 문서에 저장한 편지를 켰다. 내가 봐도 난 그림을 참 못 그렸다. 아마 태주가 이 그림을 발견했다면 너무 충격받아 다시는 날 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태주가 그림 그리는 걸 여전히 좋아한다면 이젠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그릴 것이었다. 창을 끄고 배경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왜소한 모습의 태주를 꼭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서떡하면서도 따스한 느낌이 좋았다.

#### • 제형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여자는 발그레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들어올 때 더 이상 내게 정수리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 너머의 폭신한 회색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디자인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간략히 설명드릴 거고 검진 두 개 받으시면 됩니다. 곧 엄마가 될 텐데 어떠세요, 기분이?”

“조금 설레요. 저 건강하게 아이 낳으려고 요즘 운동도 시작했어요.”

여자는 그렇게 안 생겨서 말이 많은 편이었다. 그렇다고 수다스럽고 방정맞은 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클래식 음악에 나올법한 새소리 같은 느낌이었다.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명랑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적절한 반응과 미소를 보였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우측 채팅방에 ‘Pre-mom 2045 검진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올라왔고 나는 그녀의 말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내심 아쉬웠다.

“왜요? 저 이제 나가면 되나요?”

그녀는 이제 내 표정을 꽤 잘 읽어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떨떠름해하며 뒷목을 쓸었다.

“눈꼬리가 살짝 접혀요. 한쪽 입꼬리도 조금 올라가고.”

나는 거울에 비친 내 표정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살짝 접힌 눈꼬리에 한쪽으로 올라간 입꼬리.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음소리를 냈다. 그리곤 머리를 쓸어넘기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검진 먼저 받으세요.”

프로젝트도 벌써 반 년이었다. 소스야 내게 충분히 있었지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디자인 현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18년 전 자료를 보여주었다. 어느 주차에 어떤 자료를

보여줄지까지 모두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녀는 18년 전 자료를 보며 매번 감탄을 서슴지 않았다. 대단하다며, 천재 아니냐며, 기대가 된다고. 그럴 때면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바늘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몇 번이나 확인했음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난 알 수 없었다. BPS001은 서툰 내 손에서 위태롭게 태어난 아이였지만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을 보였다. 하지만 그런 아이가 사회성 결여라니. 아이는 커가면서 점점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아이가 크는 데는 환경과 유전자가 복잡한 상관관계를 이룬다. 초등학생이라도 아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성 결여와 같은 문제는 양육 환경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양육이며, 어디서 어디까지가 유전자의 범위인지 구분하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18년 전 자료를 리뉴얼하고 정리하는 데는 길어야 2개월이었다. 마음의 확신이 서지 않았다. 여자가 아이를 버릴 것에 대한 걱정과 그녀가 그럴 리 없다는 막연한 믿음이 갈등을 이루었다. 디자인 아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부터 불량아이라며 쉽게 내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졌다. 돈 많은 자들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었으며 직접 임신해서 낳은 아이여도 조금의 이상만 발견되어도 아이를 불량품이라며 반품을 요구했다. 엄연히 생명인데. 난 그녀의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에 확신이 없었다. 여자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었으며 혹여나 그녀의 투명한 모습에 통수를 맞을까 하는 의심이었다.

내 아이를 두 번이나 잃을 수는 없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같은 아이를 두 번이나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 기술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양육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아이로 자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 따위 고려하지 않고 법은 이를 금지시켰다. 자신과

똑같은 생명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도플갱어의 등장에 분명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거라며, 자신과 같이 생긴 자를 살인할 수도 있으며,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크나큰 상처로 인해 사회적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그들의 부모 혹은 기술자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며 엄격히 금지했다. 그럼 법적으로 내 아이 만나는 것을 허락이나 해주던가……. 소식도 못 듣게, 찾아갈 수도 없게 해놓고 금지라니.

정부는 사소한 것에도 ‘금지’를 붙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강한 규제가 들어왔다. 내가 일하는 분야가 분명 논란이 많은 분야이기는 했지만 이걸 정말 심했다.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만 아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똥 같은 법이었다. 뭘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면서 아는 척은. 혈기왕성할 때에야 이런 환멸 나는 법에 여러 번 청원도 넣어봤지만 의미 없는 일이었다.

## • 인애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18살 때였다. 그 아이의 이름은 태주였다. 정부는 18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하게 했다. 직업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거라며 몇 해 전부터 시행되던 방침이었다. 자원봉사는 4지방까지 선택할 수 있었고 나는 육아도우미센터, 고아원, 산모 기관, 유아 심리 상담 센터 등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했다. 결국 모두에게 인기 없는 고아원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고아원의 정식 명칭은 아이 돌봄 센터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이 돌봄 센터라고 부르지 않았고 고아원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 핏줄보다 우선시 되는 게 유전자인 사회였다. 자기 핏줄이어도 더 우월한

유전자의 아이를 입양했고 핏줄은 쉽게 버렸다. 또한 유전자 디자이너들은 아이를 만들어 고아원에 보냈다. 개중 대부분이 문제 있는 아이였다. 그렇게 고아원은 환영받지 못한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생 불가라며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다.

고아원은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다. 시설도 좋았고 고아원 원장님을 비롯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기적이고 시야 좁은 어른도 많았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아 보였고 그렇게 애쓰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다. 아이들은 순진했고 대부분 순진한 척을 했다.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었다.

고아원 아이들 역시 내겐 똑같이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였다. 생기 있는 눈망울에 작고 둥그런 머리, 작고 아담한 몸.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은 한눈에 보기에 연약하고 예뻐지만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나는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고 거의 매일 갔다. 처음에 아이들은 나를 경계하거나 쿡 찌르고 도망가는 등 간을 봤다. 시간이 흐르자 붙임성이 좋은 아이들은 내게 먼저 와 친해졌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해졌다.

한 달이 흘러도 친해지지 못한 건 태주 한 명뿐이었다. 아이들은 봉사시간 동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태주와 친해지고 싶었던 나는 한 시간을 더 일찍 가기로 했다. 한 달 동안 태주를 관찰한 결과 그는 심히 소극적이었다. 간단한 질문에도 고개를 이용하여 답을 했고 두 문장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 함께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았으며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았다. 꽃이나 나무와 같은 식물을 좋아했고 자주 그렸다.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리기도 했다. 태주는 자신의 그림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나 역시 한 달 동안 어깨너머로 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원장님을 통해 태주가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 마침 차례차례 아이들을 만나 상담을 하던 때였다. 나는 태주와의 상담이 기대되는 동시에 긴장됐다. 두 문장 이상 말하지 않는 아이가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할까. 나는 태주를 만나러 한 시간 일찍 갔고 그날 오후 태주와 상담을 했다.

태주는 방으로 들어와 내게 인사를 했다. 작고 둥그런 뒤통수가 귀여웠다. 그의 피부는 하얗고 보드라웠다. 자리에 앉은 태주는 책상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여태껏 꽤 많은 아이들과 상담했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 앉은 아이는 처음이었다. 다들 들어오자마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바빴으며 내게 놀아달라고 졸랐다.

그림을 좋아하는 태주를 위해 종이와 그림도구를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모든 아이들에게 하는 공통질문으로 시작했다.

“태주야, 태주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

“...원장님이요.”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센터 원장님을 통해 이름을 가졌다. 이름을 갖고 이곳에 버려지는 아이들도 꽤 많았다. 나는 고아원에 처음 와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받았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을 입 밖으로 말하고 말았다.

“내 생각엔 말이야, 너의 이름이 좀 더 동글동글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예를 들어 ‘유화’라거나. 넌 참 부드럽고 둥근 아이거든.”

태주는 유화라는 이름을 좋아했다. 앞에 놓인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조그만 입술로 자꾸 유화를 되뇌었다. 내가 우려하던 것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였다. 어찌면 나보다도 더 성숙하고 안정되었다. 그래도 발달 초기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였나 보다.

고아원 봉사가 끝날 때쯤 원장님은 내가 더 이상 오지 않으면 태주가 무척 상심할 거라며 걱정을 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태주는 2세대

디자이너 베이비로 3살이 되어서야 이곳에 왔다고 했다. 유전자 디자이너들의 맞춤 아기들은 그들의 발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긴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그래도 태주는 맞춤 아기치고 늦게 들어온 거라며 아마 태주를 만든 닥터가 아이를 보내기 싫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렇게나 작고 어린 생명을 떼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는 생각이었다.

고아원 봉사를 마치고 두 달이 지나 겨울이 왔다.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은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한순간 추워진 바람처럼 불현듯 12월에 태주의 생일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태주는 12월 29일생이었다. 난 달력을 보고 아직 3주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선물을 고민했다. 이래저래 많이 떠올려 봤지만 ‘그림’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난 태주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pc를 선물하기로 했고 그림은 못 그리지만 직접 그림을 그렸다. 몇 날 밤을 연습해서 겨우 그린 게… 말도 못 하게 이상해서 결국 그림은 선물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림 파일을 휴지통에 넣고 문서를 켜 편지를 썼다. 예쁘게 선물 포장까지 해두고 D-day를 썼다. D-3에, 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주가 입양됐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선물 상자를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뿐이었다.

#### • 제형

나는 그녀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제안하거나 예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간 수도 없이 고민을 했고 이젠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병원 번호로 그녀에게 오늘 있던 검사를 모두 미루고 상담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환갑도 넘었는데 순진한 어린 여자를 속이는 건 너무 양심 없는 행동이었다. 그녀의 오랜 꿈이 좌절당하게 될 것이 벌써부터 마음 아팠다.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녀가 유화를 입양해 키웠으면 싶었지만 나로서는 아이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문자를 받고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지 불안했을 것이다. 그리고 난 그녀의 불안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가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나는 서둘러 내 팔에 약물을 주사하고 ‘Planning 922, 들어오세요.’라고 남겼다.

여자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자는 불안을 억누른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딘가 어색한 그녀의 웃음에 어지러움을 뒤로하고 나도 덩달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고 괜히 가족 소파를 만졌다.

“무슨 일 있어요?”

“네……. 그 설명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여자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었고 살짝 올라간 광대는 그 자리에서 굳어 내려올 줄을 몰랐다.

그간의 일들을, 그간의 고민들을 차례로 말했다. 거대 연구원에서 일을 하다 나오게 된 일, 나오면서 맞춤 아기 전문 병원을 설립하게 된 일, 첫아이 유화를 직접 만든 일,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아이 돌봄 센터에 맡기게 된 일, 아이가 그곳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일, 그리고 입양되어 소식을 모른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여자는 내가 5분도 채 말하지 않았는데 울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젊은 만큼 눈치가 빨랐고 내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녀는 내 첫아이가 자신이 만난 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어찌 되었든 그녀에게 아이를 만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녀 역시 첫 아기부터 일이 틀어지게 된 것이었다. 나는 협회와 정부의 조치와 법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유화에게서 발견된 ‘사회성 결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유전정보에 그 어떠한 오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유화의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했다. 차라리 그녀에게 아이를 대신 찾아 키워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건 정말이지 염치없는 부탁이었다.

여자는 눈부터 시작해 코, 귀, 인중이 차례로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얼굴은 물론 목까지 붉어졌다. 목에 핏줄이 설 만큼 울었고 우는 내내 그녀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에 준비해둔 차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차게 식어버렸다. 나는 여자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어쩐지. 태주보다 유화가 더 잘 어울리겠더라.”

그녀는 말하기 힘들어하면서도 곳곳이 그 당시 만났던 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태주라는 이름보단 유화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했더니 이름을 마음에 들어 했다고 말해주었다.

“비록 태주가... 아니 유화가 소극적이기는 했지만 꽃이나 나무를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아이였구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남의 생각이나 감정도 잘 알아챘어요. 그림도 아주 잘 그렸구요.”

울컥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 듯했다. 여자를 통해 듣는 유화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위로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늘 ‘엄마’라고 답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제 꿈을 이상하게 보더라구요. 이 병원 소개해준 친구 빼고는 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양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제가 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도 아니고……. 제가 아직 좋은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되었나 보죠.”

여자가 내 방에서 나가고 모니터 시계를 봤더니 3시간이 지나있었다. 그녀가 거듭 고맙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축축해진 방 안의 공기를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천장에 대고 환기시키라고 말했다. 마른 세수를 하고 서랍을 열어 약병과 주사기를 봤다. 언젠가 길거리에서 태주를 만나면 좋은 형이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름을 없애는 약물과 관절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주입했다. 그 덕에 양 팔 모두 주사자국이 가득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 유화

“다녀왔습니다.”

“왔니? 방에 어떤 분이 널 보러 왔어. 들어가 봐.”

날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고아원에서, 입양된 후에도 내 부모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 부모일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올해로 18살인데 이제야 날 찾으러 오는 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었다. 나는 화가 난 상태로 방문을 열었다. 하지만 앉아있는 건 9년 전 고아원에서 봤던 누나였다.

“오랜만이야, 유화야.”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유화는 입양된 후 고아원에서 쓰던 태주라는 이름을 버렸다.  
양부모님께 ‘유화’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로 쪽  
유화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아직 그림 그리냐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 그림을  
보여주었다. 누나의 눈가는 울었는지 붉었고 눈이 조금 부어있었다.  
한참 내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네가 꼭 좀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 만나볼래?”

“부모님께 물어볼게요.”

나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나갔다. 이걸 거절하면 다시는  
친부모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다. 아빠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누나는 내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며 코트를 걸쳐 입었다. 나도 옷장에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다. 누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날 주며 말했다.

“이거. 9년 전 너 생일 선물로 샀던거야. 이제야 주네. 생일  
축하했다.”

태블릿 pc였다. 책 봐도 오래된 모델이었다. 9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오래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신형이었겠지.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누나를 따라갔다.

나를 데리고 간 곳은 한 병원이었다. 유전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원장님 계시냐는  
질문에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있으라고  
안내했다. 누나 옆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양손을 깎지 껴다. 누나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괜찮아, 떨지마’라고 얘기해 주었고 카운터에서 누나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원목 문 앞에 섰다. 아직도 원목 문을 쓰는 사람이라니. 원목 문에  
그려진 패턴을 보자 왠지 마음이 편해졌다. 문을 세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눈을 질끈 감고 문을 열었다.